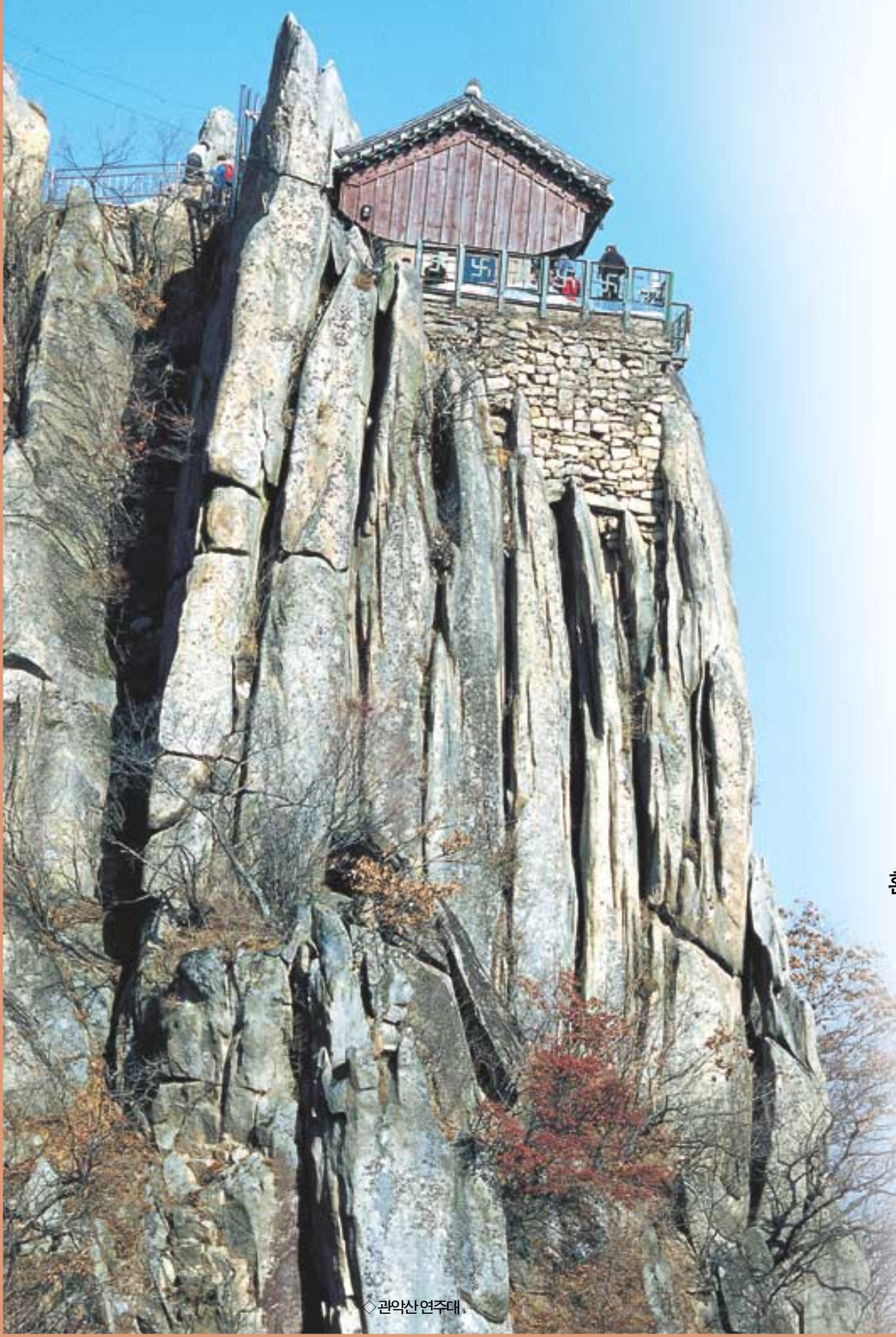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20) 관악산 연주암



▷관악산연주대

기암 절벽에 피어오른 꽃봉우리

관악의 수사찰(僧寺刹)인 연주암(總主庵) 가는 길은 세 갈래이다. 서울 사람들은 주로 신림동 서울대학교 쪽에서 오르고, 안양 사람들은 안양유원지에서 오으며, 과천 사람들은 과천시청 쪽에서 오른다. 과천시청을 돌아서면 연주암 들머리에 향교가 앉아있다. 수령 3백년의 느티나무와 몇 그루의 노송에 둘러싸인 맑은 편 개울 건너 암벽에 '丹霞詩境(단하시경)' '紫霞洞天(자하동천)' '白雲山人(백운산인 자하동천)' 등의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이곳을 찾아 읊풍농월(吟風弄月)했던 우암 송시열, 주사 김정희,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5)가 남긴 발자취다.

개울 주변 난잡한 건물 연주암 뒤로 숨은 철탑 환경 무시한 근시안적 개발 회양목 등 582종의 다양한 식생군락 형성

그러나 단하시경도 자하동천도 이제 는 옛 말이다. 향교 옆에 훤훤스럽게 들어선 골프연습장, 크고 작은 건물들과 갖가지 시멘트 구조물 등 눈길에 머물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다. 발길로 저만치 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물길이 끊어지는 겨울철이면 아래위에 흩어져 살던 버들치며 수서곤충들이 소로 피난 온다. 특히 1급수에서 사는 버들치는 자하동천의 지표종이다. 몇 개체 남지 않은 버들치가 자하동천에서 사라지면 이곳의 생태계도 함께 끝장이다.

도시림(都市林)들은 현재 일사일산(一社一山) 제도로 가꾸어지고 있다. 환경시대에는 산중사찰도 뭔가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계곡 살리기 운동은 산중사찰에게 적합한 주제이다. 말하자면 일사일천(一寺一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이다. 현재 과천 관악산 숲은 제일제당이 맡고 있는데, 자하동천의 수생태계는 연주암 사부대중이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연주암을 향해 오르다보면 군데군데 노간주나무 군락을 만난다. 돌이 많고 척박한 곳에서도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나무이다. 풍요로운 열매는 회양목을 따다가 흑갈색으로 여문다.

자하동천을 따라 올라오면서 만나는 숲은 호호림이다. 수령도 거의가 30년생



▷천수관음전

안팎에 머물고 있다. 소나무도 50년생 이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먹고 사는 것이 힘에 걸린 시절 연료목으로 함부로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이다. 연주암의 목탁소리가 들리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름드리 활엽수들이 나타난다.

관악산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류는 다람쥐, 청솔모, 족제비, 두더쥐, 고슴도치, 들고양이 정도다.

산장을 지나면 곧바로 연주암이다. <연주암지>에 따르면 의상대사가 '관악사'라는 이름으로 초창하였다고 한다. 관악

사는 지금의 연주암 자리가 아닌 서울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연주암이라는 이름은 불심이 돈독했던 효령대군이 옛 집을 새로 일으키면서 바꾸었다고 전한다. 또 하나는, 강득룡(康得龍)을 비롯한 고려 충신들이 관악산에 들어와 두문불출하면서 사라진 왕조를 그리워해서 연주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도 한다.

연주암 천수관음전은 탐방객들이 연주암을 오를 때 맨먼저 만나는 전각이다.



▷회양목

그러나 촉대가 너무 높아서 시각적으로 무겁고 숨겨진다. 게다가 지붕 위로 송신소의 거대한 첩탑까지 솟아 있어서 눈맛이 영 아니다.

삼층석탑이 도랑을 지키며 마당 가운데 입승처럼 서 있다. 석탑의 재질은 주홍색 파스텔을 연상케 하는 흑운모 화강암이다. 연주대는 효령각을 지나 10분 거리에 있다. 연주대는 관악산의 화강암이 빚어놓은 지존무상의 절경이다.

연주대는 화강암의 절리현상으로 마치 여러 줄기의 불꽃 또는 여러 개의 창(槍)을 모아 세워 놓은 듯한 모양이다. 50미터 허공에 지솟은 그 불기둥 가운데 나한전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새 등지처럼 앉아있다. 연주암이 나한도랑(羅漢道場)으로 알려진 것도 연주대 나한님으로 비롯된다.

관악산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 가운데 식물상이 가장 다양하다.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따르면, 582종으로 조사되었다. 관악산 식생의 한 특징은 회양목이 곳곳에 군락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회양목은 노간주나무와 함께 석회암 성분을 좋아하는 나무이다. 모진 비바람과 등산객들의 등쌀에 못 이겨 생육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기온까지 떨어져 녹색 잎이 불그스름하게 변해있다. 도심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기린목 회양목과는 꼭도 다른 모습이다. 민초(民草)를 느낀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동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최고의 품질로 수명 만년이상인 (주)풍산에서 생산된 인칭동과 우연(MS)의 기술로 조성된 팔만대장경

동판대장경 고복식 행사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랴스런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천년 수명의 목판에서 만년을 이어갈 동판으로 '21세기 신대장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동판대장경 복원불사 고복식 축사 중에서 -

【원을 세움이어, 슬피 원을 세움이어, 세운 원 파도같이 일어남이어... 동판장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는 선조의 피땀의 구국의 열원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적 전개에 나아감으로써 민족분단의 청산과 국민화합 그리고 높은 문화를 장담할 정치·경제·사회의 황금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 고은 시인의 동판대장경 복원불사 발원문 중에서 -

선조의 지혜에 만년을 잇는 민족문화의 생명력을 담은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국난극복 발원담이 조성한
목판대장경
이제는
법문상전과 국운융창,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열원을 담아
동판으로 조성합니다.



▲ 11월 17일 발원된 동판대장경 복원불사고복식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정스님의 지사 모습

목판으로 7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우리민족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문화의 보고입니다. 외침이라는 국난을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로 조성된 팔만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문화적 보존적 가치는 무한합니다. 목판의 수명이 아닌 정신적 지혜와 문화적 가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대장경 결집이 필요합니다.

동판으로 조성된 팔만대장경에는 만년의 생명력이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미래의 문화를 제시할 문화의 주체가 바로 동판대장경입니다. 대장경 보존을 연장하여 그 가치를 이 시대에 활용하고, 새로운 대장경 결집 정신으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하나씩 민족의 힘으로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민족의 정신 중심체로 새롭게 탄생되는 동판대장경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십시오.

동참자는 만년의 생명력을 지닌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이에 해인사에서는 동판팔만대장경 조성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현재 1029일간 영가천도 기도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들에게는 무료로 동판팔만대장경 한장에 가족이름을 새겨 해인사에 영구히 모셔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판팔만대장경만 모신 분을 위해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동판대장경 동참문의 (055) 934-3105 ~ 6 동판대장경 기탁문 (02) 585-9502 ~ 3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박세민 합장**